

‘스쿨존 사망사고’ 배승아양 눈물의 영결식

어머니 승아양이 평소 아끼던 인형 들고 유골함 봉안해 “용서 안 돼,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고 처벌 강력해져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배승아(9)’양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배양의 영정사진이 들어오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예배를 진행할 때 몇몇 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이후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를 나와 영결식장으로 향하자 유족이나 지인들은 연신 눈물을 쏟기도 했다.

끼던 인형을 들고 있었다.

유골함을 봉안한 뒤 배양의 어머니는 유골함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엄마가 매일 다시 올게. 잘 있고 또 올거야. 건강하게 지내 또 올게”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를 듣자 배양의 오빠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오열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유골함을 봉안한 뒤 배양의 친오빠는 “용서가 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고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우리 승아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고 관련 법이나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승아야 하늘가서 외롭지 않게 잘 살아줬으면 해”라며 “항상 오빠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맘 편히 잘 지내고 있어 줘”라고 말했다.

배양의 어머니는 “우리 승아가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인데 자기랑 닮아서 본인이라고 했고 항상 이 인형을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예뻐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다”라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승아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속이 시원하지 않고 그런 나쁜 놈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했던 전직 공무원 A(66)씨는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 가던 배양을 포함한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불참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됐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여수경찰,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11일 운천동 CGV사거리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경찰, 교통 안전수칙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10일 보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보성군 마을이장단을 상대로 농기계 및 이륜차 운행시 교통안전 수칙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교육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경찰, 지역 탈북민 대상 위문품 전달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동광양라이온스클럽(회장 우승섭)과 함께 최근 지역 탈북민에게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쌀 10kg 20포대·라면 등)을 전달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나주경찰,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신학기를 맞아 최근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이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사고예방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 집중 관리를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1일 담양군 종합체육관에서 담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배동관, 천양래)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전우원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듯...” 연희동 비자금 폭로

“집으로 들어온 돈다발, 가족·지인들이 가져가”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에 계속해서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11일 전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할머니(이순자씨)가 쓰는 옷장 벽을 밀면 금고가 있고 창고 쪽 복도 끝에 가서 벽을 밀면 또 금고가 나왔다고 (어머니가) 말했다”며 “아는 사람이 밀어 야만 금고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금고를 열고 들어가면 1000만원 단위의 현금다발이 묶인 채 준비되어 차곡차곡 벽에 쌓여 있었다고 하

더라”고도 밝혔다.

전씨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1000만원이나 100만원씩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비밀의 방과 지하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지상에 할아버지 서재가 또 따로 있었다”며 “거기에도 항상 현금이 가득했다. 주말마다 손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오시면 더블백 같은 걸 들고 와서 가득 담아갔다”, “하나당 몇 억씩 담긴 걸 들고 갔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자금의 유통을 두고 “정말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 했

다”고 표현했다. 그는 “비서분들이랑 경호원분들께서 돈다발이 담긴 큰 가방을 계속 들고 와서 쌓아 놔다가 필요해지면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가져갔다”면서도 “수사가 한번 진행되고 난 후에는 그런 게 크게 줄어들었고 그 이후부터 안 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외부 비자금의 경로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저나 지인분들의 명의로 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한 다음 거기에서 다시 가족에게 돈이 갔을 것”이라며 “돈세탁이 되니까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돈세탁을 도와주신 분들

은 얻는 게 너무나 많았기에 충성을 다했고 지금도 입을 닫고 계신다”고 추측했다.

전씨는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미국 생활을 다시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돌아갈 계획은 없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마약 난동을 부리고 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 내려놓고 왔다”면서도 “과거의 삶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고 누가 봐도 ‘이제부터 애가 있는 돈은 애가 벌어서 쓴 거니까 그냥 살게 내버려 둬야지’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강릉 산불 진압 위해 집결하는 소방차들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 차량들이 강릉 산불 진화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1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 주차장에 집결해 있다.

휴게소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돈 내잖아”

외부 쓰레기 투기가 금지된 휴게소에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3년 4월10일 장유휴게소 오전 9시20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심하다 심해”라고 적으며 장유휴게소 쓰레기통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검은 봉지에 담긴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밖으로 한가득 쌓여 있었다. 쓰레기통 옆에는 ‘외부반입 쓰레기 투기 시 고발 조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휴게소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밤늦게까지 쓰레기통을 지키고 있어도 막무가내로 버리고 간다”며 “심지어 틀게이트비를 내고 왔는데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나”고 막말을 한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유휴게소는 출근하면서 일부러 가정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이 많다” “양심은 어디에 버린 걸까” “CCTV 돌려서 벌금 내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